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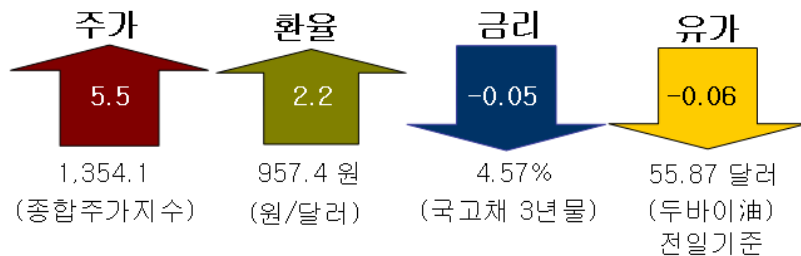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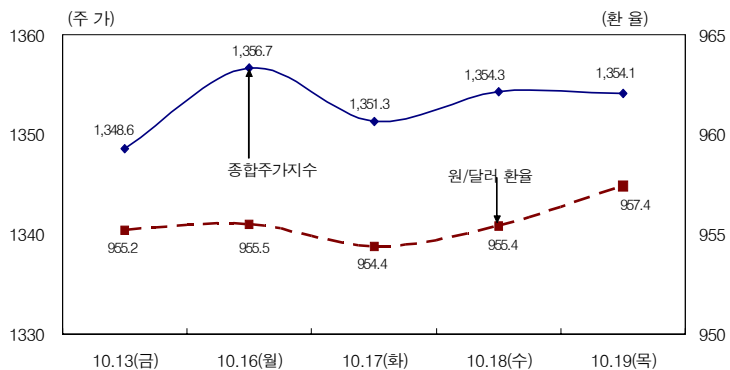
# 韓國經濟週評



■ 2007년 5대 국내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  
- 2007년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13~10.19)



차 례

<b>주요 경제 현안</b> .....	1
□ 2007년 5대 국내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	
- 2007년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 .....	1
<b>주간 경제 동향</b> .....	22
□ 실물 부문 : 소비자기대지수, 5개월 연속 기준치 하회 .....	22
□ 금융 부문 : 안전 자산 선호로 금리 하락 .....	2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실물분석팀 : 주    원    연구위원 (3669-4030, juwon@hri.co.kr)  
                   현 석 원   연구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남 총 현   연구 원 (3669-4142, netch30@hri.co.kr)  
 □ 금융분석팀 : 표 한 형   연구위원 (3669-4131, raisosa@hri.co.kr)  
 □ 동북아분석팀 : 홍 순 직   수석연구위원 (3669-4182, sjhong@hri.co.kr)  
 □ 지식산업팀 : 이 원 형   연구위원 (3669-4031, lwh@hri.co.kr)

## Executive Summary

### □ 2007년 5대 국내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 - 2007년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

**[최근 국내 경제의 특징]** 2006년 국내 경제는 5% 내외의 경기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국민총소득의 정체로 민생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였다. 최근 국내 경제의 특징으로는 먼저 국내 소비를 보면 고용 부진, 국민총소득 증가 미흡때문에 증가세가 둔화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내수 부진,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설비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건설투자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침체를 지속하였다. 셋째 수출 호조에 불구하고 국제 유가 상승에 의한 원자재 수입액 급증, 해외 교육과 여행 증가에 의한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급감하였다. 넷째 저성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크게 약화되어 고용률 하락, 청년 실업 문제 지속, 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의 고용 시장 불안이 지속되었다. 다섯째 국제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여섯째 연초에 국내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금리,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경기 불확실성, 북핵 문제 등으로 주가 조정 진입, 금리 하락세, 환율 반등과 같은 금융 시장 불안 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장잠재력 위축 등으로 비즈니스 사이클이 단축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경기 회복이 이루어진지 4분기 만에 다시 경기 침체기로 진입한 사실이다.

**[2007년 경제 여건]** 2007년 한국 경제는 내외외환의 경제 여건에 직면하게 되어 경기 침체 양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경기 침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의 동반 하강(Global Recession)이 전망된다. 둘째 미국 경기 둔화, 미국 쌍둥이 적자 해소 미흡, 미국과 주요국간 금리차 축소 등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국제 유가가 수급 불안정,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한국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대내적으로는 대선 정국에 의한 정치 논리 확산(Political Economy)이 경제 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 혼란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 Executive Summary

[저성장 함정 未脫出] 이에 따라 2007년 한국 경제는 2003년 이후 5년 연속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07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북핵 사태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4.2%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악화될 경우 3%대의 성장률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문별로 보면 국민소득이 정체되어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부문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고용 시장 개선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과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어 Stagflation적 현상이 현재화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수출 경기 하강, 원유 수입 증가,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에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 전망된다.

[5대 경제 현안과 대응 전략] 2007년 국내 경기를 예상해 볼 때 저성장 지속과 가계 부채 위기, 외환 시장 불안과 경상수지 적자화,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 증대,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인한 경제 심리 악화, 대선 포퓰리즘과 정치 경제 등의 5대 국내 경제 현안이 민생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현실 경제와의 괴리감을 축소하기 위해 정책 목표로 국민총생산(GDP)과 함께, 체감 경기와 밀접한 국민총소득(GNI) 증가를 중시해야 한다. 국민총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 확장적 금리·재정 정책 추진, 기업 투자 활성화, 건설 경기 연착륙 등으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 할 것이다. 특히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생산적인 주식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달러 환율의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외환 시장 관리 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환율 하락으로 예상되는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한미 FTA를 비롯하여 자유 무역 협정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미래 노후 대책용 투자 대상이라는 측면과 교육 환경과 같은 사회 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감안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르는 장기 불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 원리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핵 위기 등에 대응하여 대내외 경제 위기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 금융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고, UN, 미국 등 전통 우방 국가들과의 공조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선을 의식한 정치경제학적인 경제 정책 추진을 엄격히 금해야 한다. 대선 정국의 영향으로 예상되는 재원 확보가 불가능한 인기영합적 정책을 지양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 인식, 기업 규제, 조세 정책 등에서 나타나는 당정청간의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 부서인 재정부의 경제 정책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 정책을 추진할 시 경제 한 부분만을 보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 문제 해결 지향 정책(Total Solution Policy)을 추구해야 한다.

< 2007년 5대 국내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 - 2007년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 >

**명목 성장과 민생 경제의 괴리 : 2006년 한국 경제의 특징**

- 소비 회복세 둔화 : 민간소비 증가율 작년 4/4분기 1.1% ⇨ 올해 2/4분기 0.9%
- 투자 부진 : 설비투자 작년 4/4분기 4.2% ⇨ 올해 2/4분기 2.5%  
건설투자 작년 4/4분기 0.0% ⇨ 올해 2/4분기 -3.9%
- 경상수지 흑자폭 급감 : 2005년 166억 달러 ⇨ 2006년 1~8월 -13억 달러
- 고용 시장 개선 미흡 : 고용률 2005년 59.7% ⇨ 2006년 1~8월 59.6%
- 생활 물가 상승 : 생활물가 상승률 1/4분기 3.2% ⇨ 3/4분기 3.3%
- 금융 시장 불안정 : 상반기 주가, 금리, 원화 가치 강세 ⇨ 하반기 주가 조정, 금리 하락, 원율 반등
- 비즈니스 사이클의 단축 : 경기 상승 기간 외환위기 이전 평균 34개월 ⇨ 2003년 이후 12개월 내외

**내우외환이 우려되는 2007년 대내외 경제 여건**

- 세계 경기 : 세계 경기의 동반 하강 (Global Recession)
  -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EU 및 일본 경제도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
- 국제 금융 시장 : 글로벌 달러 약세 지속
  - 미 경제 부진에 따르는 달러화 약세
  - 美 금리 현 수준 유지 (하락), EU 및 일본 금리 인상 지속으로 국제 금리차 축소 전망
- 국제 원자재가 : 국제 유가 상승세 유지
  - 세계 경기 하강에 의한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OPEC 생산여력 미약, 중동 정세 불안정, 일부 산유국 정정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세 지속 예상
- 남북 관계 : 한반도 위기 고조
  - 현재의 긴장 국면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정부 정책 방향 : 대선의 정치 논리 우위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폭
  - 대선 정국, 한반도 긴장 상태 고조 등으로 靑 경기적 경제 정책 강화 예상

**저성장이 지속될 2007년 한국 경제**

저성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상황 유지시 2007년 성장률은 2006년보다 낮은 4.2%</li> <li>- 한반도 위기 상황 장기화 또는 악화시 3% 이하로 급락</li> </ul>
내외수 복합 불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 : 큰 폭으로 둔화</li> <li>- 투자 : 설비투자 부진 지속, 건설투자 소폭 반등</li> <li>- 고용 : 고용률 하락, 청년 실업 문제 지속, 고용 불안정성 심화</li> <li>- 물가 : 내수 부진에도 수입 물가 상승으로 높은 상승 압력 지속</li> <li>- 경상수지 : 무역수지 흑자 축소, 서비스수지 악화 등으로 적자 반전</li> <li>- 금융 시장 : 주가 및 금리 하락, 원화 강세 예상</li> </ul>

**2007년 국내 경제 5대 현안과 정책 과제**

<b>저성장 지속과 가계 부채 위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투자 활성화</li> <li>· 건설 경기 연착륙</li> <li>· 가계 가처분 소득 위축 방지</li> <li>· 신용 회복 제도의 실효성 강화</li> <li>· 자금의 선순환 구조 구축</li> </ul>	<b>외환 시장 불안과 경상수지 적자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외환 관리 방안 수립</li> <li>· 결제 통화 다변화 유도</li> <li>· 한미 FTA추진 명확화</li> </ul>	
<b>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 중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주택 공급 차별화</li> <li>· 비강남권 주거 환경 개선으로 강남권 수요 분산</li> <li>· 연립형 인구 구조를 감안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li> </ul>	<b>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미 양측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 제고</li> <li>· 주변국에 대한 다각적 외교</li> <li>· 전통 우방과의 동맹 체제 정립</li> <li>· 위기관리 시스템 실효성 제고</li> </ul>	<b>대선 포퓰리즘과 정치 경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 유지</li> <li>· 기업 투자 규제 완화</li> </ul>

□ 2007년 5대 국내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 - 2007년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

1. 명목 성장과 민생 경제의 괴리

- 2006년 한국 경제의 특징

- 2006년 국내 경제는 5% 내외의 경기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국민총소득의 정체로 민생 경제는 살아나지 못함. 연중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 둔화, 투자 부진, 경상수지 흑자폭 급감, 고용 시장 개선 미흡,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산, 금융 시장 혼조, 비즈니스 사이클 단축 등의 특징을 보임

1) 소비 회복세 둔화

- 국내 소비는 고용 시장 부진, 국민총소득 증가 미흡 등으로 2/4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

- 민간소비 증가율(전기대비)은 작년 4/4분기의 1.1%, 올해 1/4분기 1.3%에서 2/4분기에 0.9%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
  - 특히 소비 회복의 확장성 또는 지속 강도를 나타내 주는 핵심 소비 부문인 내구재 소비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
- 소비 부진의 원인은 국내 고용 시장 부진과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둔화로 구매력이 약화된 데에 있음
  - 국내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 주는 실질 국민 총소득 증가율은 2/4분기에 2.1%로 경제성장률 5.3%에 크게 미치지 못함

< 소비 및 구매력 관련 지표 추이 >

(전기대비, %)

		2005년				2006년	
		1/4	2/4	3/4	4/4	1/4	2/4
소비지표	민간소비 증가율	0.5	1.4	1.0	1.1	1.3	0.9
	내구재	-2.4	2.3	4.1	2.9	1.1	0.6
	비내구재	1.3	0.7	1.2	0.7	-1.6	2.6
구매력 관련지표	청년실업률	9.0	7.8	7.6	7.5	8.4	7.7
	경제성장률(전년동기비)	2.7	3.2	4.5	5.3	6.1	5.3
	실질GNI 증가율(전년동기비)	0.4	0.1	0.3	1.2	1.3	2.1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이 해당되며, 통계청의 도소매동태조사 기준.

2) 투자 부진

○ 국내 설비투자는 내수 시장의 미약한 회복세, 원자재가 상승 등에 따르는 비용 상승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건설투자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침체를 지속

- 국내 설비투자는 2005년 4/4분기 4.2% 증가에서 올해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0.4% 감소 및 2.5% 증가에 그침
  - 기업 수익성 저하로 인한 투자 여력과 심리 악화가 투자 부진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국내 상장·등록 법인 (제조업 기준)의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이 작년 1/4분기 7.2%에서 올해 1/4분기에 5.9%로 하락
- 국내 건설투자 증가율은 작년 4/4분기에 전기대비 0.0%에서 올해 2/4분기에 -3.9%를 기록
  - 특히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영향에 따르는 민간 주거용 건축 경기 하강세가 심화됨
  - 민간 부문 건설 기성 증가율은 올해 1/4분기 12.6%에서 2/4분기에 3.8%, 7월에 0.1%로 하락세를 지속
  - 주거용 건물 투자의 경우 2005년 증가세에서 올해에 들어서는 감소세로 반전되어 2/4분기에는 6.3%의 감소율을 기록

<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관련 지표 추이 >

(전기대비, %)

		2005				2006	
		1/4	2/4	3/4	4/4	1/4	2/4
설비 투자	설비투자	2.3	2.4	0.8	4.2	-0.4	2.5
	운수장비	-0.8	7.8	0.0	6.3	10.8	-18.6
	기계류	3.0	1.3	1.0	3.8	-2.8	7.6
건설 투자	건설투자	0.4	1.8	-0.8	0.0	0.6	-3.9
	건물 건설	-1.5	3.6	-0.3	0.3	-0.3	-5.7
	주거용 건물	1.4	3.1	1.1	1.6	-1.4	-6.3
	토목 건설	3.3	-0.6	-1.6	-0.5	1.9	-1.3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3) 경상수지 흑자폭 급감

- 수출 호조에다 불구하고 원자재 중심의 수입 급증,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
  - 올해 3/4분기까지 전체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4.9%로 작년 연간 증가율 12.0%를 상회하였으나, 주력 수출 지역과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
    - 對 중국 수출 증가율은 중국의 내수 증가세 둔화, 중국 정부의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정책에 따르는 한국의 부품 소재 수출 둔화 등의 요인으로 작년 24.4%에서 올해 1~9월에 12.4%로 급락
    - 자동차 수출 증가율도 원화 강세에 의한 가격 경쟁력 하락, 7~8월의 현대차 파업에 따르는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2005년 11.0%에서 2006년 1~9월에 8.2%로 하락
  - 올해 1~9월중 수입 증가율은 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0.4% 급증
    -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은 2006년 1~9월 중 전년 동기대비 25.0% 증가
  - 경상수지는 상품 수지 흑자폭 축소와 서비스 수지 적자폭 확대로 올해 1~8월중 약 13억 달러 적자를 기록
    - 올해 1~8월 기간 동안에만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약 127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2005년의 131억 달러에 근접

< 대외거래 관련 지표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 달러)

		2005					200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9월
무역	수출증가율	12.7	9.0	15.4	11.4	12.0	10.6	16.9	17.1	14.9
	수입증가율	14.8	15.2	21.1	14.6	16.4	19.2	19.9	21.4	19.2
	무역수지	61.8	60.0	48.7	61.2	232	16.3	51.0	28.5	96
국제수지	경상수지	58.8	26.0	26.5	54.3	166	-11.2	6.9	-9.0	-13
	상품수지	91.6	86.4	75.8	80.9	335	52.2	74.1	31.9	158
	서비스수지	-30.1	-32.4	-43.6	-24.9	-131	-50.0	-38.8	-38.3	-127
	여행수지	-20.2	-24.9	-29.2	-22.2	-97	-29.5	-28.4	-26.2	-84

자료 : 산업자원부, 한국은행.

주 : 국제수지 부문의 2006년 3/4분기는 7~8월 기준이며, 연간 누계는 1~8월 기준임.



4) 고용 시장 개선 미흡

○ 외형상 실업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실업 문제가 지속되고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되어 고용 시장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전체 실업률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의한 인위적인 일자리 증가 등으로 2006년 1/4분기 3.9%에서 2/4분기와 7~8월중 3.4%로 하락
  - 청년실업률도 1/4분기 이후 감소하였으나, 7~8월중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7.7%로 작년 3/4분기의 7.6%보다 오히려 소폭 상승
  - 투자 부진에 의한 신규 일자리 창출 미흡과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의한 대기업·금융 기관 등 좋은 일자리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또한 전체 취업자 증가율은 1%대를 지속하고 있으나, 국내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율은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연중 감소세를 기록
- 이 같은 신규 고용의 어려움 등으로 비경제 활동인구가 늘어나, 실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15~65세의 생산가능인구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용률은 2005년 59.7%, 2006년 1~8월중 59.6%로 낮은 수준을 지속
  - 특히 OECD 고용 지표 작성 기준으로 2005년의 한국의 고용률은 63.7%로 OECD 평균인 65.5%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30개 OECD 회원국중 20위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취업률과 고용률의 의미 >

- 취업률 (실업률) = 취업자수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란 취업자를 포함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를 의미함
- 고용률 = 취업자수 /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를 제외하고 취업 기회 부족에 따르는 구진단념자를 포함하여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인구를 의미함

< 주요 고용 지표 추이 >

(%)

	2005				2006		
	1/4	2/4	3/4	4/4	1/4	2/4	7~8월
실업률	4.2	3.7	3.6	3.5	3.9	3.4	3.4
청년실업률	9.0	7.8	7.6	7.5	8.4	7.7	7.7
취업자 증가율	0.6	1.7	1.7	1.3	1.5	1.2	1.3
제조업취업자 증가율	-0.4	-1.2	-1.8	-1.8	-1.7	-1.8	-1.3

자료 : 통계청.

주 : 7~8월은 기간중 평균이며,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5) 생활물가 상승

○ 국내 물가는 2006년 중에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4분기 이후 국제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상승 조짐을 보여, 저성장 속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6년 1/4분기 2.3%, 2/4분기 2.4%에 이어 3/4분기에 2.5%로 증가

· 또한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1/4분기에 3.2%에서 3/4분기중 3.3%로 확대

· 특히 일시적 변동 요인을 제외한 Core인플레이션을 (핵심물가 상승률)도 올해 1/4분기 1.6%에서 3/4분기에 2.2%로 급등하여, 그동안의 고유가에 따르는 수입 물가 급등 효과가 국내 물가로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핵심 물가 지수 >  
 - 핵심 물가 지수는 국제 유가 급등락, 일기 변화와 같은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배제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구성 항목중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를 의미

-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2006년 1/4분기까지 1%대로 안정되었으나, 2/4분기 2.4%에 이어, 3/4분기에 3%대를 상회함

- 수입 물가 상승률은 2005년 2.9% (하반기 5% 내외) 에서 2006년 1~8월에 8.2%로 급등함

< 주요 물가 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

	2005		2006		
	3/4	4/4	1/4	2/4	3/4
소비자 물가	2.3	2.5	2.3	2.4	2.5
생활 물가	3.4	3.4	3.2	3.0	3.3
핵심 물가	1.9	1.8	1.6	1.9	2.2
생산자 물가	1.7	1.5	1.7	2.4	3.1
수입 물가	4.2	6.3	8.1	8.9	7.7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 수입물가의 2006년 3/4분기의 수치는 7~8월 평균임.

6) 금융 시장 불안정

- 국내 금융 시장은 올해 초 국내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금리,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 들어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가 조정, 금리 하락, 환율 반등과 같은 추세 반전 현상이 나타남
  - 주가는 지난 5월 11일에 연초대비 85.3p 상승한 1,464.7p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 국내 경기 지표 악화, 북한 핵문제 등으로 6월 13일 1,203.9p까지 하락하여 10월 현재 1,300p대에서 조정 국면을 지속
  - 금리는 경기 하강 국면에 때맞춘 정책 금리 인상으로 투자 심리 악화와 가계 부채 증가에 의한 소비 둔화 원인으로 작용
  -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의 글로벌 약세 영향으로 연초 1,013원에서 5월 9일 연중 최저치인 930.7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경기 둔화, 북한 핵 문제 등으로 강세 현상이 다소 약화되면서 960원 내외에서 횡보세 지속
  - 한편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보다 큰 폭으로 절상됨에 따라, 원/엔 환율은 연중 강세 현상을 보여 2005년 평균 930원대에서 2006년에는 평균 820원대로 하락
    - 원/엔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2006년 상반기까지 지속된 한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들어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억제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 주요 금융 시장 지표 추이 >

(단위 : p, %, 원)

	2005				2006			
	1/4	2/4	3/4	4/4	1/4	2/4	3/4	10.18.
종합주가지수	965.68	1,008.16	1,221.01	1,379.37	1,359.60	1,295.15	1,371.41	1,354.26
국고채(3년)	3.91	4.02	4.60	5.08	4.93	4.92	4.57	4.60
CD(91일)	3.54	3.54	3.93	4.09	4.27	4.59	4.59	4.57
원/달러	1,024.3	1,024.4	1,038.0	1,013.0	975.9	960.3	946.2	955.4
원/100엔	952.5	927.3	915.9	860.0	831.7	834.0	802.8	8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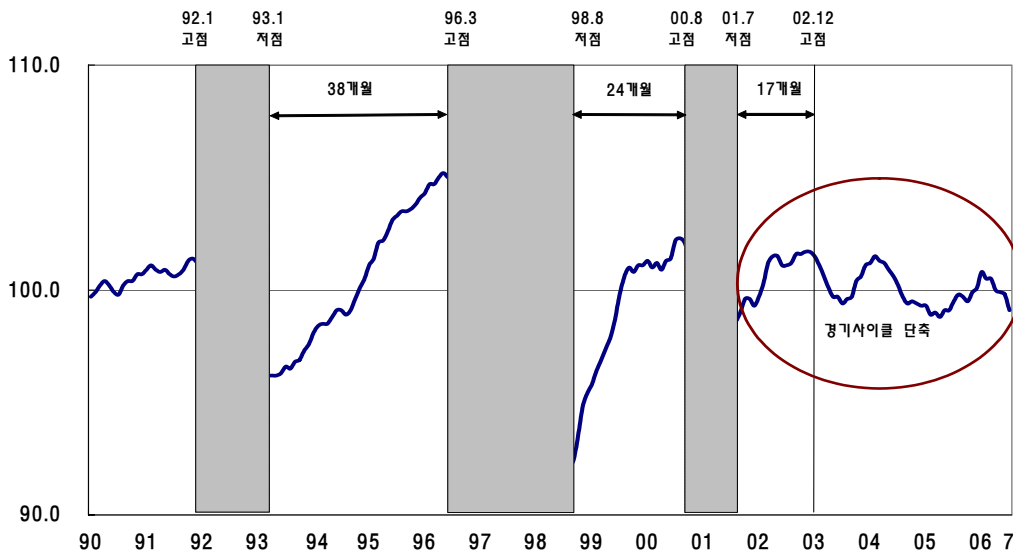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 : 기말 기준.

7) 비즈니스 사이클 단축

○ 90년대 이후 국내 경기 순환 주기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어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기 사이클 주기는 외환위기 前에는 상승기가 평균 34개월이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약 12개월 내외로 단축되는 추세임

< 국내 경기 순환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추이 >



자료 : 통계청.

- 이와 같이 경기 국면의 방향성이 자주 바뀔에 따라,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져 민간 투자와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침

· 최근에 CSI (소비자기대지수) 가 연초에 상승하다 연말에 하락하는 상고하저 현상이 나타나고, BSI (기업경기실사지수) 가 잦은 방향성 변화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민간 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 국내 소비 심리 및 투자 심리 지표 추이 >

	2005				2006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CSI (통계청 소비자 기대지수)	105.7	97.8	99.1	103	103.4	97.4	94.8
BSI (전경련 기업실사지수)	119.2	105.1 ↘	111.4 ↗	103.8 ↘	118.9 ↗	98.6 ↘	103.5 ↗ (10월)

자료 : 통계청, 전국경제인연합회.

## 2. 내외외환이 우려되는 2007년 대내외 경제 여건

- 2007년은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기의 동반 하강 (Global Recession),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지속, 국제 유가 상승세 유지, 한반도 정세 위기 고조 등이 전망되고, 대내적으로는 대선 정국에 의한 정치 사회 불안의 증폭 등이 예상

### 1) 세계 경기 : Global Recession

- 세계 경제는 2006년에 미국 경기 둔화, 유럽·일본·중국 경기 상승이라는 비동조화 (Global Decoupling) 현상이 나타났으나, 2007년에는 미국 경기 하강이 심화되고 중국, EU, 일본 경기도 하강 국면으로 진입하는 세계 경기의 동반 하강 (Global Recession) 현상이 우려됨
- 2006년 Global Decoupling : 미국 경제성장률이 2/4분기에 급락한 반면, 중국, EU, 일본 경제는 호조세를 지속
  - 미국 : 주택 경기 부진에 따르는 소비 부문 위축으로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 2.6%로 1/4분기 5.6%의 절반 이하로 급락함
  - 일본 :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수출 둔화와 정부의 재정 지출 축소의 영향으로 1/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3.4%에서 2.5%로 낮아졌으나, 부문별로 보면 소비 및 기업투자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어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EU :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투자 및 소비의 내수 회복세가 빨라져 주요 경제 대국인 프랑스 및 독일의 높은 경제 성장에 따라 EU 전체적으로 꾸준한 경기 상승세를 유지
  - 중국 : 고정자산투자 확대 및 수출 증가로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1.3%의 초고속 성장을 지속

### <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4	3/4	4/4	1/4	2/4
미 국 (전기대비 연율 환산)	3.1 (3.3)	3.4 (4.2)	3.1 (1.8)	3.7 (5.6)	3.5 (2.6)
일 본	2.6	2.8	4.0	3.4	2.5
E U	1.2	1.7	1.8	2.2	2.7
중 국	10.1	9.8	9.9	10.3	11.3

자료 : 한국은행.

- 2007년 Global Recession : 미국 경기 후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 EU, 일본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6년 5.1%에서 2006년에는 4.9%로 하락할 전망
  - 미국 : 주택 경기 하강에 따르는 소비 부진, 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 내수 부문 부진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됨
  - EU : 올해 하반기까지는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내년에는 경제 발전 단계가 상이한 국가들 간의 통합에 따르는 혼란, 재정정책 수단 상실 (대부분의 국가들의 재정적자가 EU의 안정성장협약 기준인 GDP 대비 비율 3%를 초과), 유로화 가치 상승 등의 요인으로 성장률 하락이 예상
  - 일본 : 장기 불황 탈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 경기 둔화에 따르는 수출 부진으로 2007년 경제성장률은 2006년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중국 : IMF 전망에 따르면 2007년 경제성장률은 2006년과 동일한 10%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IMF에 의하면 세계 교역량은 주요 선진국 경제 성장 둔화, 중국 경기 하강 등으로 올해의 8.9% 증가에서 내년에 7.6% 증가에 그칠 전망
  - 선진국들의 수출증가율은 2006년 8.0%에서 2007년에 6.0%로 하락하고, 수입증가율도 같은 기간 7.5%에서 6.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및 교역량 전망 >

(%)

	2005	2006 (E)	2007 (E)
세계 경제성장률	4.9	5.1	4.9
미 국	2.6	3.1	2.9
일 본	2.6	2.7	2.1
E U	1.3	2.4	2.0
중 국	10.2	10.0	10.0
세계 교역량 증가율	7.4	8.9	7.6
선진국 수출 증가율	5.5	8.0	6.0
선진국 수입 증가율	6.0	7.5	6.0

자료 : IMF.

주 : 2006년 연간 및 2007년 연가는 IMF 전망치임.

2) 국제 금융 시장 :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지속

○ 2007년 국제 금융 시장은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지속, 선진국간 금리차 축소 현상 등이 나타날 전망이다

- 주요 국제 투자은행들에 의하면 美 달러화는 미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개선 미흡, 미 경기 하강, 미·일과 미·유럽간 금리 격차 축소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약세 현상이 지속될 전망
  - 2005년 기준 美 경상수지는 7,915억 달러로 GDP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수지는 3,180억 달러로 GDP의 2.6%에 달함
  - 엔/달러의 경우 2007년 8월까지 최고 19.0%, 최저 6.3% 하락 예상

< 해외 주요 투자은행의 환율 전망표 >

	엔/달러				달러/유로			
	'06년8월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06년8월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평 균	115.92	110.07	106.96	102.20	1.2810	1.3000	1.3100	1.3170
(평균)					(평균)			
최 고	117.35	118.0	118.0	110.00	1.2793	1.35	1.40	1.40
(월말)					(월말)			
최 저	102.0	95.0	95.0		1.24	1.23	1.22	

자료 : 국제금융센터.

주 : 투자은행의 전망일은 9월 1~9일임.

- 국제 금리는 미국 정책금리가 美 경기 둔화로 내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하되고, 유럽과 일본은 상대적 경기 호조로 정책금리의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과 다른 선진국간 금리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
  - JP모건은 美 정책 금리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나,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UBS 워버그 등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은 美 경기 둔화 우려로 현 5.25%에서 내년에는 최저 4.00%까지 정책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이는 미국으로의 자금유입 동기를 약화시켜 글로벌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

< 해외 주요 투자은행의 미 연방기금 금리 전망치 >

투자은행	2006.12	2007.6월 이후
메릴린치	5.25%(현수준 유지)	4.00%
골드만 삭스	5.25%(현수준 유지)	4.00%
UBS 워버그	5.25%(현수준 유지)	4.25%
JP 모건	5.50%	6.00%

자료 : 국제금융센터.

주 : 투자은행의 전망일은 9월 1~9일임.



3) 국제 원자재가 : 국제 유가 상승세 유지

○ 2007년 국제 유가는 세계 경기 하강에 따르는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 불안, OPEC 생산 능력 확충 미흡, 일부 산유국 정정 불안 등으로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국제 유가는 올해 상반기에 시장 수급 불안정, 투기성 수요, 이란 핵문제 등의 요인으로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최근에 들어 국제 금리 상승에 따르는 투기 자금의 대규모 시장 이탈로 하향 안정세를 나타냄

· 2006년 10월 18일 현재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56.86달러로 전년말의 53.19달러보다 약 6.8% 상승

- 2007년 국제유가는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나, 시장 불안 요인들이 상존하여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

· 美 경제의 성장 둔화, 중국 정부의 경기 과열 억제책 등으로 세계 석유 수요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유가 급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확산, 이란 핵문제, 나이지리아 내전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음

· 특히 대부분의 산유국들의 석유 생산 설비 확충 노력 미흡으로 생산 여력이 거의 없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가격 안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더욱이 OPEC은 석유 가격 하락시 감산을 계획중에 있음

· 그 결과 CERA에 의하면 2007년 두바이유 가격은 70달러선까지 상승할 전망

\* IEA에 의하면 OPEC의 생산 여력 (excess capacity)은 1980년대 중반 일 평균 최대 1,000만 배럴에서, 90년대 약 500만 배럴 정도를 유지했으나, 2003년 이후 이 규모는 100만 배럴 내외의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

< CERA의 국제유가 전망 (고유가 시나리오) >

	2005년	2006년					2007년(E)
		1/4	2/4	3/4(E)	4/4(E)	연간(E)	
Dubai	49.54	57.25	64.70	66.50	71.00	64.86	74.25
Brent	54.47	61.50	69.40	73.50	78.00	70.60	81.75
WTI	56.59	63.00	70.27	75.00	80.00	72.07	83.75

자료: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9월 13일 전망.

4. 남북 관계 : 한반도 위기 고조

○ (대외적 요인) 북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미·일의 제재 수위와 북한의 대응에 의해 결정될 것이나, 당분간은 대결과 긴장 고조 방향으로 전개되어 현재의 긴장 국면이 지속되거나 국지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이 존재

- 북한 입장 : '先금융제재 해제, 後6자회담 복귀' 원칙 하에, UN 결의안에 강력 반발하면서 '제2의 고난의 행군' 준비를 예고

· 미·일의 고강도 제재가 가시화되면 북한의 추가적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UN 탈퇴 등의 반발이 예상되나, 중국·러시아의 반대와 추가 발사와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명분 제공 우려 등으로 실제 행동은 쉽지 않을 것임

· 그러나 대북 제재가 강화될 경우,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선박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해상 충돌 가능성이 존재

· 따라서 부시 행정부 동안에는 합의 도출 기대보다는 내부 결속 강화와 추가적 실험·발사 등의 엄포성 공세로 현재의 긴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입장 : 10월 14일의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대북 금수 및 금융제재의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는 동시에, 인권 개선 등의 비군사적 '체제 전환'(regime transformation) 압박 조치도 병행해나갈 전망

· 유엔헌장 7장에 따른 강제 결의인 만큼 모든 회원국들의 책무 준수를 촉구 하면서, 북한의 대응에 따라 대북 제재위원회를 통한 추가 조치도 검토

· 다만, 미국의 중간 선거(11. 7) 결과에 따라 '대화' 방향으로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 중국·러시아 입장 : 징벌이 제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북한 선박의 검색에는 반대하고 있어,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논란의 여지가 존재

○ (대내적 요인) 북핵 문제 장기화 등으로 대북 지원 반대 여론이 확산될 경우에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

- 정부는 UN 결의안은 준수하되, '한반도의 안정적 비핵화와 안보 위협 및 경제 불안 최소화' 원칙을 견지함에 따라 '상황 악화 예방'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여,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경색 국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 그러나 북핵 해법에 대한 한미간 이견과 핵실험 이후의 국내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포용 정책은 상당 부분 수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여소야대 정국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특사 파견과 탈출구 모색을 위한 북측의 호응이 있을 경우에는 남북 관계의 돌파구도 기대

5) 정부 정책: 대선의 정치 논리 우위 (Political Economy)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폭

○ 2007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복핵에 의한 한반도 긴장 상태 고조와 대선 정국이라는 특수한 정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음

- 일단 정부의 2007년 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06년 0.9조 원 적자에서 2007년에 13.3조 원 흑자로 전환되어 경기 중립적 재정 운영을 계획함

· 관리대상수지도 GDP 대비 적자폭이 2006년 14.9%에서 2007년에 오히려 13.7%로 낮아짐

- 그러나 2007년에 실시될 대선을 의식하여 정치 논리에 의한 경제 정책이 추진될 경우에 정책 혼선이 우려됨

· 다시 말해 대선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인기와 여론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제 정책의 남발로 정책의 비일관성, 부처간 정책 혼선 현상이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선거를 의식한 무분별한 경기 부양책과 선심성 복지 정책 추진은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조세나 국채 발행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증대시켜 민간 경제 활력이 위축되는 '재정의 구축 효과'가 발생할 것이 우려됨

<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

	2005	2006(E)	2007(E)
통합재정수지 (조 원)	0.8	-0.9	13.3
(GDP 대비, %)	0.1	-0.1	1.5
관리대상수지 (조 원)	-13.1	-14.9	-13.7
(GDP 대비, %)	-1.6	-1.7	-1.5

자료 : 기획예산처,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6. 9. 27.

### 3. 저성장이 지속될 2007년 한국 경제

- 2007년 경제성장률은 대외 여건 악화로 외수 부문 성장 기여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 2006년의 5% 내외보다 낮은 4%대 초반이 될 것으로 전망
- 만일 북핵 실험에 따라 예견되는 한반도의 위기적 상황이 장기화되어, 소비와 투자 위축이 심화될 경우에 성장률은 3%대 이하로 급락할 수 있음

#### 1) 現 경기 판단 : 2/4분기 이후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입

- 올해 1/4분기에 들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동반 하락하고 있어, 작년 2/4~4/4분기의 짧은 경기 회복 국면이 마무리 되고 국내 경기가 2006년 하반기 이후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
- 경제성장률 하락 : 올해 2/4분기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0.8%로 1/4분기의 1.2%보다 0.4%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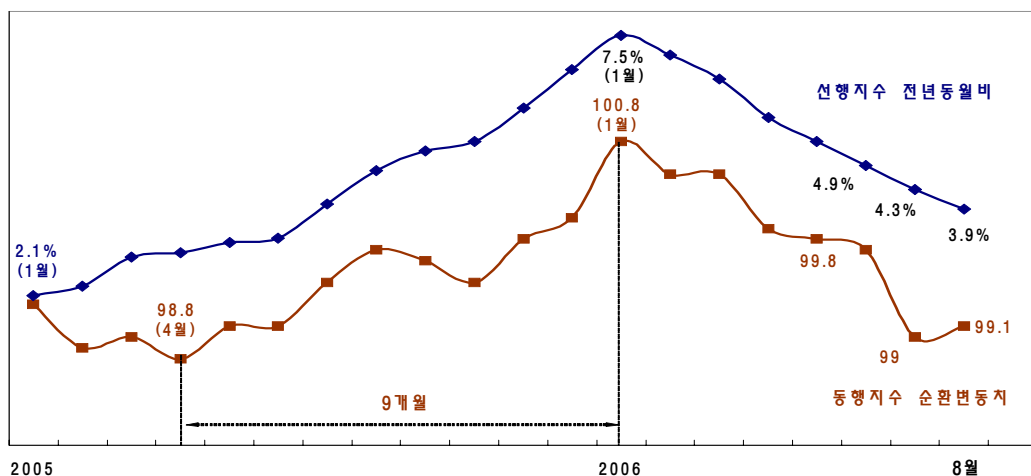
<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

	2005				2006		
	연간	1/4	2/4	3/4	4/4	1/4	2/4
전기대비 (계절조정)	4.0	0.5	1.4	1.6	1.6	1.2	0.8
전년동기대비 (원계열)		2.7	3.2	4.5	5.3	6.1	5.3

자료 : 한국은행.

- 경기 지수 하락 : 동행 및 선행지수가 모두 올해 2월 이후 하강세로 전환

< 경기 종합 지수 추이 >



자료 : 통계청.

## 2) 전망의 개요

### ○ 전망의 전제 조건

- 2007년 세계 경제 성장세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둔화됨을 전제
-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 배럴 당 연평균)는 2006년 60달러 대와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원/달러 환율은 2006년 평균 960원 내외에서 2007년 940원 내외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르는 원화 환율 하락 압력이 국내 경기 하강으로 인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상쇄
- 특히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북한 핵문제가 장기화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

### ○ 2007년 경제성장률은 대외 여건 악화로 외수 부문 성장 기여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 2006년의 5% 내외보다 낮은 4.2%를 기록할 전망

- 2007년 상반기까지 경기 하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북핵 문제의 향방이 2007년 국내 경기 흐름을 결정할 전망
- 국내 경제 여건이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북핵 문제가 악화되지 않으면, 하반기부터 경기가 호전되는 U자형 경기 추세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은 4%대 초반이 예상
- 그러나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내외국인 투자 감소, 소비 심리 위축과 같은 부정적 영향이 심화될 경우에 1%p 내외의 성장률 둔화 요인이 발생함

3) 부문별 전망

- 부문별로는 내수 부문에서는 소비 및 설비투자 둔화, 건설투자 소폭 반등, 고용 부진 심화, 물가 상승 압력 증대가 예상되고, 외수 부문에서는 경상수지의 적자 반전이 전망되며, 금융 시장은 내수 부진에 의한 금리 하락,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르는 원화 강세가 예상

- 소비 : 큰 폭으로 둔화 예상

- 2007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가계 부채 증가 등에 의한 소비 여력 약화, 그동안의 국민총소득 증가세 부진, 생활 물가 상승에 따르는 실질 구매력 저하 등으로 2006년 4.0%에서 3%대로 낮아질 전망
- \* 가계부채(가계대출 + 판매신용)는 2004년말 474.7조 원에서 2005년말 521.5조 원, 2006년 2/4분기말 545.5조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 설비투자 : 부진세 지속

- 투자 관련 제도 개선 미흡, 대선 정국에 의한 정치 사회 불안, 내외수 경기 동반 부진 등에 의한 투자 심리 악화로 4%대의 증가율에 그칠 예상
- \* 설비투자의 선행 지표인 국내기계수주(경상, 선박제외) 증가율은 2006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전년동기대비 11.2% 및 20.8%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7~8월 평균 1.9%로 크게 낮아짐

- 건설투자 : 소폭 반등

- 민간 부문의 부동산 경기는 정부 규제 지속으로 부진세를 지속할 것이나, 건설투자는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정부의 공공 건설 투자 확대 로, 1%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 정부는 2006년 하반기 이후 기업·혁신도시, 임대형 민자 사업(BTL : Build-Transfer-Lease), 수익형 민자 사업(BTO : Build-Transfer-Operate), 등 건설 관련 투자를 확대시킬 계획임

- 고용 : 고용 상황 악화

-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부진 등에 의한 고용 창출력 악화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일 예상

\*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용률은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의 고용률은 올해보다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 2002년 7.0%, 2003년 3.1%, 2004년 4.7%, 2005년 4.0%

\* 고용률 : 2002년 60.0%, 2003년 59.3%, 2004년 59.8%, 2005년 59.7%

- 물가 : 상승 압력 상존

· 국내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지속에 의한 수입 물가 상승세가 유지되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

\* 수입 물가 상승률은 2005년 2.9%에서 2006년 1~8월에 8.2%로 급등

- 경상수지 :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적자 반전

· 그동안 국내 성장을 견인했던 대외 부문의 경우 내년에는 수출 경기 둔화, 원유 수입 증가,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에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수출 증가율은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통상 마찰 확대 등으로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

· 수입 증가율은 국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현상의 지속으로 수출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서비스 수지는 만성적인 교육·여행 수지 적자로 적자 기조가 이어질 전망

\* 2006년 1~8월 동안의 원유수입액은 374.5억 달러로 전년동기의 260.9억 달러보다 43.5% 급증

- 금융 시장 : 내수 경기 둔화에 의한 주가 및 금리 하락,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르는 원/달러 환율 하락이 예상

· 금리 소폭 하락 :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르는 수출 부진 가능성,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인한 내수 경기 하강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올해보다 소폭 하락한 연 평균 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원화 강세 유지 : 경상수지 적자 등에 따르는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달러 약세, 위안화 평가 절상 압력 지속 등에 의한 하락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여 올해 평균 960원 내외보다 하락한 940원대를 기록할 전망

\* 위안화는 달러 대비 2005년말 8.07에서 2006년 1/4분기말 8.03, 2/4분기말 8.00, 3/4분기말 7.90으로 빠르게 절상중임



< 2007년 주요 부문별 경제 전망 >

		2005(P)	2006(E)	2007(E)		
국제 지표 (IMF)	세계경제성장률 (%)	4.7	5.1	4.9		
	미국 (중국)	3.2 (10.2)	3.4 (10.0)	2.9 (10.0)		
	일본 (EU)	2.6 (1.3)	2.7 (2.4)	2.1 (2.0)		
국내 지표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	4.0	4.8	4.2	
		최종소비지출 (%)	3.4	4.2	3.7	
		민간소비 (%)	3.2	4.1	3.5	
		총고정자본형성 (%)	2.3	2.9	2.5	
		건설투자 (%)	0.4	0.5	1.5	
		설비투자 (%)	5.1	7.5	4.5	
	대외 거래	통 관 기 준	경상수지 (억 \$)	166	30	-30
			무역수지 (억 \$)	232	170	100
		수출 (억 \$)	2,844	3,250	3,550	
		증가율 (%)	(12.0)	(14.3)	(9.2)	
		수입 (억 \$)	2,612	3,080	3,450	
		증가율 (%)	(16.4)	(17.9)	(12.0)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7	2.5	2.8	
		실업률 (%)	3.7	3.5	3.7	
	금 용	원/\$ 환율 (평균, 원)	1,024	955	925	
		국고채금리 (평균, %)	4.3	4.6	4.4	

#### 4. 2007년 5대 국내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

- 2007년 국내 경기를 예상해 볼 때 저성장 지속과 가계 부채 위기, 외환 시장 불안과 경상수지 적자화,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 증대,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인한 경제 심리 악화, 대선 포퓰리즘과 정치 경제 등의 5대 국내 경제 현안이 민생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됨
- 저성장 지속과 가계 부채 위기
  - 저성장 지속 :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감소하여 청년 실업 문제 지속, 비정규직 증가 등의 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OECD 고용 지표 작성 기준으로 한국의 고용률은 2005년 기준 63.7%로 OECD 평균인 65.5%에 미치지 못하여, 30개 회원국 중 20위 수준에 그침
    - 국내 기준으로는 2002년 60%에서 2004년 59.8%, 그리고 2006년 1~10월중에는 59.7%로 갈수록 저하됨
  - 가계 부채 위기 : 2006년 9월말 현재 가계 부채 규모는 약 558.8조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2.6배가 급증하였으며,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57.8%에 달하여 가계부채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증대됨
    - 특히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만약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 긴축 정책을 펼칠 경우, 경기 침체에 따르는 가계 실질 소득 감소로 가계 파산이 증가하고 서민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권의 경영 부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이러한 경제 위기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 정책 목표로서 국민총생산(GDP)과 함께, 체감 경기와 밀접한 국민총소득(GNI) 증가를 중시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경기 확장적 금리·재정 정책 추진, 기업 투자 활성화, 건설 경기 연착륙 등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주력해야 함
    - 또한 가계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계 부채의 모니터링 강화, 기존의 신용 회생 제도의 대상 요건 완화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비생산적인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켜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외환 시장 불안과 경상수지 적자화

- 외환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원화 환율이 급등할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국내 경제의 성장 활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음
- 외환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환 시장 관리 능력을 제고시켜 환율 급변동을 막아야 할 것임
  -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급증시 국내외 자본의 급격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외환 유출입 동향 파악' 기능을 강화해야 함
  - 또한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미 FTA 체결 등을 통해 자유무역지대를 확대시켜야 할 것임

○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 증대

- 부동산 담보부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융 긴축에 따르는 부동산 가격의 급락은 역자산 효과를 초래하여 소비 둔화와 가계 파산 및 금융권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미래 노후 대책용 투자 대상이라는 측면과 교육 환경과 같은 사회 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인 점을 감안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부동산 대책은 단기간 내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유도하기보다 지역별, 주택 유형별 수급 여건과 향후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보다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함

○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인한 경제 심리 악화

-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 리스크가 증폭될 경우, 가계 및 기업의 경제 심리 악화를 유발하여 경기 부진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존재함

- 따라서 정부는 북미 양측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특히 주변국은 물론 UN, 미국 등 전통 우방 국가들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외에도 환율, 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의 경제 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 금융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고, 대내외 경제 위기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 시켜야 할 것임

○ 대선 포퓰리즘과 정치 경제

- 2007년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자칫 인기영합주의의 확산으로 경제 정책의 혼선이 유발되어 국내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우려가 존재함
- 따라서 우선 대선 정국의 영향으로 예상되는 재원 확보가 불가능한 인기영합적 정책을 지양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또한 경기 인식, 기업 규제, 조세 정책 등에서 나타나는 당정청간의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 부서인 재정부의 경제 정책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임
  - 특히 인기영합주의가 자칫 반(反) 기업 정서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정부는 투자 관련 제도의 획기적 개혁 등 시장 경제 원리를 확립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한편 경제 정책을 추진할 시 경제 한 부분만을 보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 문제 해결 지향 정책(Total Solution Policy)을 추구해야 함

경제본부 (3669-4030, juwon@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소비자기대지수, 5개월 연속 기준치 하회

○ 향후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월에 94.8로 여전히 기준치 100을 하회하고 있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

CSI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하회 - 또한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도 8월의 78.9를 기록

- 소득 계층별로는 최저소득 계층인 月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계의 소비자 기대지수가 87.6으로 2002년 9월 이후 4년 1개월 동안 기준치를 넘지 못함

실물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지 못 할 경우 소비 심리 회복은 어려울 전망

- 비록 소비자 기대지수와 평가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최근 실물 경기 부진, 북한 핵실험 등의 부정적 여건으로 향후 소비 심리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움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2006						
			연간	2/4	3/4	4/4	1/4	2/4	7월	8월	9월	
경기	경제성장률	4.7	4.0	3.2(1.4)	4.5(1.6)	5.3(1.6)	6.1(1.2)	5.3(0.8)	-	-	-	
	수요	소비재판매	-0.8	3.9	3.4	4.4	6.8	5.0	5.5	-1.3	3.4	-
		설비투자추계	1.4	3.2	1.4	1.1	7.0	4.3	4.2	4.1	11.7	-
		건설수주	-3.9	9.5	38.5	15.8	-17.9	-9.7	-14.1	7.3	14.9	-
	공급	수출	31.0	12.0	9.0	15.4	11.4	10.6	16.9	11.4	17.6	22.1
		산업생산	10.2	6.3	3.5	7.1	10.3	12.0	10.9	4.3	10.6	-
		취업자수 (만명)	2,256	2,286	2,313	2,303	2,303	2,258	2,341	2,345	2,316	-
		실업률 (%)	3.7	3.7	3.7	3.6	3.5	3.9	3.4	3.4	3.4	-
		수입	25.5	16.4	15.2	21.1	14.6	19.2	19.9	18.4	23.0	22.8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282	166	26	27	54	-11	7	-4	-5	-	
	무역수지(억\$)	294	232	60	49	61	16	51	4	4	20	
물가	소비자물가	3.6	3.2	3.0	2.3	2.5	2.3	2.4	2.3	2.9	2.4	
	생활물가	4.9	4.1	4.5	3.4	3.4	3.2	3.0	2.9	3.8	3.2	
심리	소비자기대지수	86.5	103.0	97.8	99.1	103.0	103.4	97.4	94.3	93.7	94.8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이며,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안전 자산 선호로 금리 하락

○ (해외 금융 시장)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변화 발표로 달러화 약세

- 금리: 미 9월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지수가 유가하락으로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소폭 하락 (국채 10년물 : 4.80 → 4.78%)
- 환율: 미국의 물가상승 둔화 전망 및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 비중 다변화 발표에 의해 글로벌 달러화 약세 (\$/€ : 1.2513→1.2549, ¥/\$ : 119.64→118.15)

○ (국내 금융 시장) 국내 금융시장 안정세 유지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으로 안전자  
산에 대한 수요 증가  
로 금리 하락

- 주가: UN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의 강세 및 조선업종의 업황 호조 기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 (1,348.6→1,354.1)
- 금리: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 보도로 국채 등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외국인들의 국채선물 순매수 확대 등으로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4.62→4.57%)
- 환율: 수출업체 네고 물량 출회에도 불구하고 역외거래자의 달러화 매수 및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 (955.2→957.4)

○ (전망) 북핵 문제 장기화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 예상

< 주요 금융 지표 >

		2005			2006				
		2/4	3/4	4/4	1/4	2/4	3/4	10.13.	10.19.
국내	거래소 주가	1,008.2	1,221.0	1,379.4	1,359.6	1,295.2	1,371.4	1,348.6	1,354.1
	국고채3년(%)	4.02	4.60	5.08	4.93	4.92	4.57	4.62	4.57
	원/달러	1,025.4	1,041.1	1,011.6	971.6	948.9	946.2	955.2	957.4
해외	DOW	10,275	10,569	10,718	11,109	11,150	11,679	11,961	12,011
	Nikkei	11,584	13,574	16,111	17,060	15,505	16,128	16,537	16,551
	미국채10년(%)	3.91	4.32	4.39	4.85	5.14	4.63	4.80	4.78
	일국채10년(%)	1.17	1.48	1.48	1.78	1.93	1.68	1.77	1.81
	달러/유로	1.2108	1.2026	1.1849	1.2118	1.2790	1.2674	1.2513	1.2549
	엔/달러	110.92	113.51	117.75	117.78	114.42	118.18	119.64	118.15
	두바이(\$/배럴)	52.09	56.32	53.19	59.16	67.17	57.33	55.93	55.87

주 : 해외 지표는 전일 기준임.